

# 고흥 유자·석류, 무안 양파·한우 지역특구 지정

중기청 5곳 신규지정...각각 294억원·395억원 지원

2018년까지 가공유통 산업화·직관장 설립 등 사업

고흥군이 전국 최초의 유자·석류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무안군은 양파 및 한우의 융복합 특구가 됐다. 두 지역특구에는 오는 2018년까지 294억원, 395억원이 각각 지원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고흥은 전국 제1의 유자 생산지(전국 대비 44%)이자 석류 주산지(전국 대비 64%)인 점, 이를 바탕으로 고흥군이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특구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30일, 고흥(월빙 유자·석류 특구)과 무안(황토양 양파 한우 융복합 특구), 서울 중구(메디컬 해피 투어리즘 특구), 강원 인제(황태산업 특구), 경북 영주(힐링 특구) 등 5개를 새 지역특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월빙 유자·석류 특구의 3대 전략 분야는 ▲가공유통 산업화 ▲생산기반 혁신화 ▲관광·홍보 활성화 등이다. 유자·석류의 식품산업육성·연구 기반 조성,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축제·테마마를 정비, 브랜드 파워 강화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

특구명	지역	사업내용	투자금액	고용창출(예상)
월빙유자석류특구	고흥	유자·석류 식품산업육성 유자·석류 등 관광	294억원	260명
황토양 양파 한우 융복합특구	무안	양파를 먹인 기능성 한우 명품화 사업	355억원	609명

시됐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정면적 25만3469㎡에 294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 518억원, 부가가치 239억원, 소득유발 71억원, 고용 260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있을 것으로 고흥군은 내다봤다.

무안읍과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온남면 일대 69만3952㎡에 고품질 양파 생산 인프라 구축, 양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양파를 먹인 기능성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양파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무안군은 양파와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양파 기계화 단지 조성 ▲양파전용비료 개발 공동연구 협약 체결 ▲농산물종합가공



기아차 모잠비크에 학교 건립 기아자동차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헬레네에서 인

## 확바뀐 '뉴 하이트' 출시

하이트 진로, 맛·알코올 도수 바뀌 품질 향상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의 대표 맥주 브랜드 '하이트'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화한 맛과 청정성을 강조한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80년 양조기술을 집약해 맥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전면적 혁신을 담아 리뉴얼을 단행한 '뉴 하이트'(New hite)를 다음달 3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뉴 하이트는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맛, 알코올 도수까지 전 부문에 걸쳐 신제품 수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뉴 하이트는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계 각국의 대표맥주와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바꿔 쓴맛을 줄였다. 홉, 몰트, 탄산을 최적으로 조합해 청량감을 강화했으며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 알코올 도수도 4.3도로 조정했다. 기존 하이트의 4.5도보다 도수를 낮춰 가벼운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미국 최고 브랜드 버드라이트는 4.2도, 1인당 맥주소비가 가장 많은 체코의 필스너우르켈은 4.4도다.

뉴 하이트의 BI(Brand Identity)와 상표디자인도 대폭 바꿨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은 "국내 맥주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나서기 위해 대표 브랜드인 하이트를 이름만 빼고 모두 없애고 싶었다"며 "하이트는 20년간 300억 병 이상 팔린 한국 대표 맥주로,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 하이트만의 특징인 청량감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안정된 병

접어과공법도 적용했다. 전 공정의 온도를 0도 이하로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에서 맥주의 불순물과 잡미를 제거해 뉴 하이트의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뉴 하이트만의 특징인 청량감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안정된 병

## MIG LED조명 세계시장 진출 본격화

(Made In Gwangju)

獨 조명·건축박람회 참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독일에서 'MIG'(Made In Gwangju)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30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MIG 공동관에는 6개 기업(네오마루, 더블유케이, 삼진엘앤디, 유양라이팅, 케이엑텍, 프로맥엘이디)이 참가해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전원 LED 가로등, 지하주차장용 LED 조명, 불빛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LED 조명 등의 스마트 LED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시와 함께 30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명·건축박람회 '라이트 앤 빌딩 2014'에 참가, 광주에서 생산된 광산업제품인 MIG 공동관을 구성하고 LED조명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 활동에 들어갔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MIG 기업이 글로벌 LED 조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로또복권 (제591회)		2등번호 숫자
당첨번호	등위	당첨금(원)
8 13 14 30 38 39	1	2,964,676,200
5	2	65,014,829
1 6개 숫자 일치	3	1,665,923
2 5개 숫자+번호 숫자 일치	4	50,000
3 4개 숫자 일치	5	5,000
4 3개 숫자 일치	6	1,251,393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까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지난 21일 문을 연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중흥건설 제공)

## 나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최고 6.89대 1 경쟁률 1순위 청약 마감

중흥건설이 광주·전남혁신도시 B 15블록에 분양하는 '중흥S-클래스 센트럴'이 최고 6.8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84㎡B타입도 2.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두 주인을 찾았고, 72㎡는 1.0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 청약자를 맞췄다.

지난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중흥S-클래스 센트럴'은 이날 이뤄진 1순위 청약 신청 결과 일반공급 334가구 모집에 1010명이 청약해 평균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03가구를 모집한 84㎡A타입은 710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인 6.8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분양 관계자는 "중흥S-클래스 센트럴의 우수한 입지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견본주택을 찾아온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 및 일반 특별공급에 서부터 청약접수가 많이 몰려 1순위 청약도 무난히 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조치가 2019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해 2019년 3월 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

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 공급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다시 5년간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건설협 전남도회·설비건설협 광주전남도회 정기총회

이연풍 설비협 회장 연임

이연풍 설비협 회장 연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지난 27일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영구)는 이날 광주 호тел무투파크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공사물량 확보와 적정공사비 반영 등 위기에 직면한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주력하기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광주 호텔무투파크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광주·전남도회 회장에 현 8대 회장인 이연풍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연풍 설비협 회장 연임